

[그말씀 설교 4] 그 악을 제하려고

[본문] 요나 4:1-11 / 이문식 목사 / 페이지 수: 4

"하나님께서 박 넝쿨을 준비하사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던니" (욘4:6)

세상일이나 교회 일이 자신의 이상과 기대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깊은 좌절과 실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그 실망감이 일종의 배신감으로까지 번져, 그 실망을 불러일으킨 세상이나 교회,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분노와 증오를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그 분노가 안에서 폭발하여 스스로 죽어버리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으니까? 오늘의 요나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지금 견딜 수 없는 절망과 분노에 몸을 떨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기대했던 니느웨의 멸망이 도래하기는 커녕 오히려 니느웨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한 것에 깊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3절)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안될 때, 자기가 견지해온 어떤 삶의 원칙이 무너질 때 인간은 때때로 이렇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선지자 요나에게 세 가지에 걸쳐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먼저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고 또 다시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두 번의 동일한 질문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요나의 분노가 전혀 합당치 않은 것임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고 다시 질문하심으로써 이번에는 하나님 자신의 니느웨에 대한 긍휼의 행동이 아주 합당한 것임을 새삼 요나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제시하려고, 세 번씩이나 반복 질문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요나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과연 무엇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말씀으로 설득하시는 하나님

오늘 요나의 분냄은 결코 공의의 분노가 아닙니다. 얼핏 보면 니느웨처럼 악한 나라는 멸망 받아 마땅하다는 '공의로운 세계관'과 '정의감'에서 오늘 요나가 분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요나의 분노가 악한 분노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심히 싫어하고'라는 말의 원뜻은 '아주 악한 것이 되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니느웨를 멸망치 않으신 그 자비와 긍휼의 사건이 요나에게는 도리어 악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커다란 악이 되어 흥분하였더라"(1절 원문 직역). 그래서 그는 오늘 하나님께 몸을 떨며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선'이 요나에게는 '심한 악'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마디로 바리새적 최악의 상태가 요나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는, '자기가 생

각하는 의(self righteousness)'가 '하나님의 의(Thy righteousness)'보다 더 절대적인 것이며, 절대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자기의 의'는 지금 '하나님의 의'보다도 더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의라는 이상숭배에 그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세상 안에서 '자기 성취' (self fulfillment)를 이루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민족주의 선지자, 선민사상의 예언자로서 조국의 원수인 니느웨가 붕괴되어야 한다는 자기의 꿈이 이루어질 것만 기대했을 뿐 그 나라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오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율법과 전통의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율법적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율법을 넘어서서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율법주의를 스스로 부인하지 못하고 그 신학과 사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닙니까? '자기의 의 절대화' 이것은 아주 무서운 독선이며 가장 큰 악이 되는 것이며, 의를 가장한 자기숭배입니다.

오늘, 요나는 바로 얼마 전에 놀라운 물고기 뱃속에서의 구원을 체험했고 또 그 감격을 뜨거운 노래로 불렀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복잡한 역사적 환경에 휘말리자, 금방 그 첫 사랑의 열정을 상실했으며, 드디어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분노하고 저항하는 자신의 옛 기질을 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회개했던 자기의 첫 행위를 금방 다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요나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노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스로 빨리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행치 않을 줄을 내가 미리 짐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니느웨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뜻대로 안 되는 이 현실을 못 견디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바로 육에 속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우리도 어느덧 자기 나름의 신앙습관과 법칙과 라이프 스타일에 굳어져서 그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의 자기 상대화가 일어나지 않는 신앙, 그리고 자기의 비전과 관심에 맞는 부분만 헌신하고 절대로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 일에는 헌신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 신앙이 습관화된 우리, 그리고 자기 뜻이 좌절되면 쉽게 분노하는 나. 바로 우리 자신이 이 요나가 아닙니까?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은 조용히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고 물고기 뱃속에서의 구원을 체험한 요나가 또 다시 하나님께 분노하는 모습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환경으로 설득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조용한 첫 번째 설득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노를 마음속 깊숙히 담아놓고 이제 그 성이 과연 어떻게 되나, 그 끝을 보려고 니느웨성 동편에 초막을 짓고 앉아 있습니다. 소위 '연좌 농성'인 것입니다. 이렇듯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표정으로 초막 그늘 아래 맞아 장기 농성을 하

고 있는 이 완악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다루십니까? 저는 정말 이 장면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여유와 멋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완악한 요나에 대하여 결코 속상해하시지도, 화를 내지도 않으시고 피식 웃으시며 다음의 세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먼저 박넙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벌레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치 멋진 작품을 기획하시는 무대 감독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설득하시기 위하여 자연의 소도구들을 하나하나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박넙쿨을 자라게 하시어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아우성치던 요나는 금방 180도로 기분이 확 바뀌어 심히 기뻐했습니다(6절).

그러나 바로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기습작전으로 벌레를 등장시켜 박넙쿨을 잘라내시고 또 뜨거운 사막의 동풍을 준비하사 햇빛을 요나의 머리 위에 내려 죄이시니 요나는 금방 또 다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요나의 마음 속에 있는 극단적인 바리새적 정서 불안을 엿 볼 수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바리새적 도덕주의자는 극단적인 이율배반에 쉽게 빠진다. 자기 의가 채워지면 금방 하늘에라도 오를 듯 교만해지고 자기 의를 못 채우면 금방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부르짖는다'고 말했는데, 바로오늘의 이 요나가 이런 모습을 뚜렷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적 인간, 자기중심적인 신앙인은 결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 성취의 욕구와 그 충족 정도에 따라 내면의 정서가 출렁거리기 때문에 결코 참된 평화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참된 평화는 진정으로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치밀하게 박넙쿨, 벌레, 동풍을 준비하시며 요나의 분노를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이르기까지 최대로 끌어올리시는 이유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 악에서 빼내어 오려고'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넙쿨과 벌레와 동풍을 준비하여 요나를 최악의 환경으로 몰아 넣으신 이유는 한마디로 요나를 그 악에서 빼내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이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은 요나의 악의 근원은 바로 이기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본문에 보면 2절에서만 '나'라는 1인칭이 무려5회나 나오고 짧은 3절에서만 4회 나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나의 영혼을 내게서 취하옵소서. 나의 죽음이 나의 생명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3절 직역). 이 짧은 구절에서 요나는 무려 '나'라는 말을 아홉 번이나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 속에 함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요나의 분노의 근본 원인은 민족 이기주의였고 더 나아가 박넙쿨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더 근본적인 이유는개인 이기주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번째 질문에서 요나의 이기심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확인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과는 달리 "네가 이 박넙쿨을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고 '이 박넙쿨을 인하여'를 추가하시며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분노가 얼핏 보면 공의를 강조하는 의로운 분노인 것 같아도 실은 그 뿌리가 지극히 하찮은 박넙쿨의 손실에도 쉽게 분노하는 이기심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주변 환경을 위기상황으로 몰아오실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숨겨졌던 이기적인 동

기나 목적이 없었는가를 스스로 되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두 번째 질문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유의 질문

오늘 요나는 이처럼 구체적인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 앞에서도 여전히 '태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라고 완악하게 자기 변명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요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이젠 정말로 화를 내며 두들겨 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넉넉하게 아집으로 맞서는 요나를 향하여 아주 호소력 있는 최종 질문으로 그 대화를 끝내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매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낚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넙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명이며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환경으로 설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 자신의 박넙쿨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설득하십니다. "네가 아꼈거든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박넙쿨 체험을 깊이 돌이켜보게 하는 하나님의 최종 질문 앞에 마주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박넙쿨처럼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계획과 기대와 대상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의 집착과 안타까움을 돌이켜보며, 이기적인 내가 이렇다면 하물며 아가페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에 대하여얼마나 더욱 안타까워 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실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요나에 대한 마지막 설득을 서술문 형태가 아니라 '의문문 형태로 했다는 것에 우리는 최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나를 깨우치려는 그분의 사랑은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 형식으로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침묵과 반성의 지평선 위에 무한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사랑은 언제나 이처럼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웃을 입고 열린 질문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대상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인격적 사색과 반성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억압으로 다가오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폐쇄된 서술문, 닫힌 마침표로 다가오지 않고 열린 자유의 물음표로 다가옵니다. "내가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의 바리새적 경직은 이 자유와 사랑의 넉넉함 안에서 비로소 풀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 말했습니다(고후3:17).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언제나 성령 안에서 정직으로 마음을 열고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겸허히 서십시오. 물음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을 여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참된 인격적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 출처 : 그말씀